



© (Suryunbang) Lee Jeeyeung

특별 기획 현대 미술전 [따로-같이],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 (Suryuanbang) Lee Jeehyung

50년 전의 이야기, 50년 이후의 이야기 [강재영(전태일기념관 학예연구원)]

전태일기념관에서 기획 전시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다. '만약 전태일이 살아서 오늘을 마주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코로나19로 얼룩진 지금, 여행사 사장에서 대리 기사로, 연극 배우에서 방역 요원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까? 일하러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전태일이라면, 덜 아프게, 같이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실천하지 않았을까? | 전태일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우리의 뒤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일'을 생각했다. 제도의 안전망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미처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같은 시간 속 다른 위치에서 함께 살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시간을 내어 돌아보고, 함께 잘 살아 갈 방법을 찾는 일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말이다. | 2020년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전과 <따로-같이>전은 50년 전의 이야기, 50년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담으려는 시도였다. '같이 사는 일'을 이미 실천했던 50년 전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지금 여기에서, 시각 예술가들에게 '같이 사는 일'에 대해 질문하고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현대 미술을 통해 동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존을 실현할지 조망하고자 했다. 전시를 보는 분들이 전태일기념관에 머무르는 동안은, 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길 바라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계를 멈출 수도 있다 [반재하]: 반재하는 우리 시대에 연대를 방해하는 것, 연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상품 유통 구조를 짊어진다. '유통'을 자본주의의 피, '교통'을 자본주의의 핏줄로 보고 상처난 사과를 주인공으로 사유를 펼친다. 상처난 사과는 인간의 노동력에 비유된다. 과일은 상처 나면 비상품이 되어 버려진다. 인간의 노동도 마찬가지다. 2미터 70센



© [Suryusanbang] Lee Jheeyoung



특별 기획 현대 미술전 [따로-같이],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티미터 길이의 수에즈 운하 사진은 자본주의 유통이 가진 국가적 속성을 보여 준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계를 멈출 수도 있다>는 제목의 영상 작업에는 각 유통 단계의 노동자들이 사과를 분류하고 운송하는 장면과 함께, 사과를 차로 밟고, 줄로 부수고, 드릴로 으깨는 장면이 등장한다. 작가는 락카로 표식을 그리고, 사과를 부수는 노동자의 행위를 '해적 행위'라 정의하고 "인간이 인간을 초월한 유통의 시공간 압축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비상품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지" 탐구한다.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영토의 변형>은 플라스틱 컨테이너, 지게차 팔레트, 냉장고 등이 용달 트럭 뒤에 묶인 짐처럼 체인에 묶여 위태롭게 쌓아 올려져 있다. 냉장 기술과 컨테이너는 현대 유통 체계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핵심 테크놀로지, 세로로 쌓여 있는 형태는 시공간의 압축을 은유한다. 이 작품은 현대 유통 자본주의의 무빙 이미지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서로의 조각이 되는 방법 [이미정] : 이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이와 좋아하는 물리적 조건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어떤 존재(타인이나 다른 유기체)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맞추며 희생하는 법도 있지만, 각각이 독립된 주체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혼자서도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공존할 수 있다. 작가는 고양이를 만나면서 생각한 공존에 대한 사유를 이번 작품에서 시각적·물리적으로 섬세하게 설계된 하나의 체계로 구성해 냈다. 이 체계에는 인간과 고양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적 장치가 있다. 총 27개의 '풍경 조각'을 각각이 회화처럼 보일 수 있도록 흰 벽에 균일하게 배치했다. 어느 하나를 떼어 내어 다른 벽에 걸어도 작품이 된다. 동시에 테두리에 있는 돌기들은 27개의 '풍경 조각'을 서로 조합할 수 있게 한다. '조각'이라는 코드를 통해 고양이와 인간의 시선을 겹쳐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풀들에게 이름 찾아 주기 [강은영×송보경] : 풀을 아끼는 작가에게, 잡초들은 항상 고민거리다. 강은영은 판매하는



화분에 난 잡초도 일단은 뽑지 않은 채 손님에게 의사를 묻는다. 화분에 심은 적도 없는 풀들이 자라면, 잘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작품 이름은 〈위드플랜트(weedplant)〉가 되었다. 잡초를 위한 화분을 전시하기로 했다. 전시장에 잡초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전시 기간 동안 물을 주고 키워 보기로 했다. 풀들에게 누군가 붙여 주었을 이름도 찾았다. 풀들의 이름과 특성이 사진과 함께 담긴 카드를 만들었다. 강은영은 풀들의 이미지를 모호한 분위기로 연출하기 위해 송보경과 협업했다. 각각의 풀들을 새 화분으로 옮겨 심기 전, 같이 살던 식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정방형 카드의 한쪽 면을 채웠다. 전시장 채광창에도 반투명 사진 시트를 붙여,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풀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정했다. 꽃이 피고, 씨가 날리는 식물원이 된 이번 작업은 인간과 풀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으로, 공존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것이 시공간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체험을 만들었다.

‘따로-같이’라 제목은 네 명의 작가가 서로 다른 공존에 대한 생각을 ‘따로’, 그리고 ‘같이’ 공간에서 시각화하는 전시의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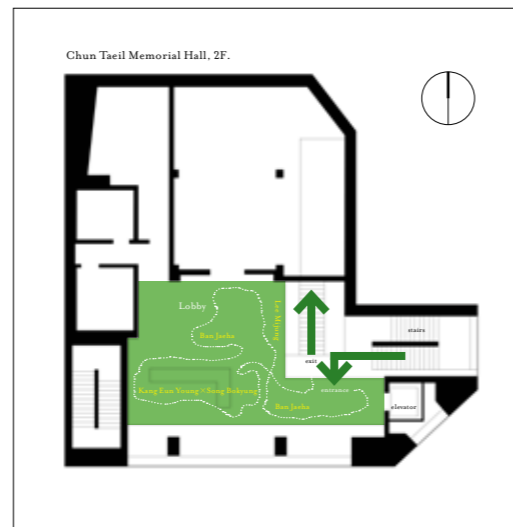
© (Suryuanbang) Lee Jheeyoung

Special Exhibition [Alone-Together]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passing of Chun Taeil, we are gravely threatened by disasters. Due to infectious diseases, climate change, discrimination and economic crisis, we cannot pass a day without struggling for survival.

In 1970, Chun Taeil and The Cheonggye Pibok Labor Union(Cheonggye Apparel Makers' Labor Union) practiced how to live together in solidarity. Now, How and with whom should we live in a really difficult time? Why don't you think about living with the living things that surround our lives? Doesn't it start with a heart that not to break growing grass, and that take out the cat hidden in a car in the cold winter? Isn't this the heart of Chun Taeil today?

[Alone-Together] is a special exhibition that brings the issue of coexistence into the field of visual arts.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are four gifted contemporary visual artists who have pursued the practice of coexistence in their respective places. They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visual solidarity with plants, animals, and the structure of coexistence and this exhibition will demonstrate how such coexistence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ir efforts.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에서 마련된 현대 미술전 [따로-같이] 전시 공간(연두색). 3층의 상설전과 특별전을 보고 2층으로 내려오게 구성되어 있다.

[F] 특별 기획 현대 미술전 [따로-같이]



특별 기획 현대 미술전 [따로-같이],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Artist **Ban Jaeha** captured the distribution process of apples in her videotapes and displays the still-life photos of damaged and bruised apples during the exhibition. She intends to show us that fruits just harvested hundreds of kilometers away are delivered to our home in just one or two days and in the process some fruits are discarded if they fail to bear the image of ‘freshness’ or ‘delivered directly from the farm’. Ban Jaeha displays the photos of bruised apples to illuminate the concept of labor hidden in the distribution process.

Since the day when a stray cat accidentally came to her studio, artist **Lee Mijung** has grown closer to various cats inside and outside the studio. During the exhibition, she expresses her own experience of forming relationships with these cats over the course of two years in the language of visual art. Lee Mijung, who has closely observed how animals coexist even though they live in different systems, will exhibit structures and drawings that reflect human life while using cats as a motif. She adopts the viewpoints of both humans and cats and recreates structures that are divested of their functions and utilities.



반재하, 〈무제(눌린)〉[Untitled (Squashed)], 100×100cm, Pigment Print, Framed, 2020.



반재하, 〈무제(떨어진)〉[Untitled (Fallen)], 100×100cm, Pigment Print, Framed, 2020.



반재하, 〈무제(썩은)〉[Untitled (Rotten)], 100×100cm, Pigment Print, Framed, 2020.

[F]

특별 기획 현대 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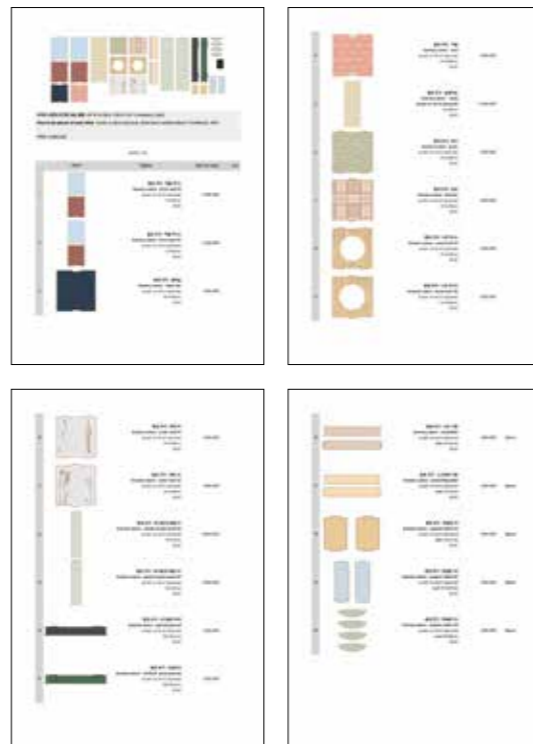
[따로-같이]

전태일 50주기, 2020년은 재난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한 순간도 떨쳐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전염병, 기후 이변, 차별과 경제 위기에 ‘사회적 연대’로 견디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 1970년, 전태일과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연대하여 함께 사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둘러싼 살아 있는 것들과 같이 사는 일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라는 풀을 함부로 꺾지 않는 마음, 추운 겨울 차 안으로 숨어 버린 고양이를 애타게 꺼내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오늘 전태일의 마음이 아닐까요?

[따로-같이]는 ‘공존’이라는 단어로 전태일 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기, 같은 시간 속에서 따로 살아가는 유기체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기를 요청합니다. 한국 현대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네 명의 시각 예술가에게 공존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실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작가들은 식물, 동물, 과일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유기체들을 통해 공존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에서 풀어 냅니다.

반재하는 거대한 경제 구조 속, 소외되고 가려지는 ‘노동’을 드러내 보여 주는 작업

Artists **Kang Eun Young** and **Song Bokyung** envision concrete ways where creatures from different systems can coexist and then put the vision into artworks through collaborative work. Kang Eun Young, who is also running a plant shop, has paid special attention to plants as a subject in visual art using the media of prints. During this exhibition, she will concentrate on coexistence with nameless plants or weeds which have been disregarded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and selling. Usually, Kang cannot extract even a small weed in the yard and tries to find the name of an unknown grass blown into the ground. During the exhibition, she finds these unknown plants their names and creates for them an environment in the exhibition hall where they can continue a proper, not parasitic, life. Artist Song Bokyung takes photos of these plants and displays them in the memorial hall lounge, creating a space for a special exhibition. What has been regarded interrupting or insignificant turns into small enjoyment?



이미정, 〈우리가 서로의 조각이 되는 방법 (How to Be Pieces of Each Other)〉, 나무 위 아크릴릭, 가변 크기, 2020.

을 이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의 유통 구조를 통해, 공존을 방해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전시합니다. 불품 없는 과일은 맛과 상관없이 버려 집니다. 수에즈 운하, 사과를 자르고 부수는 유통 노동자, 냉장고와 그 위에 위태롭게 묶인 사과 껍질은 당일 배송 시대 유통의 이면을 은유적으로 비판합니다.

이미정은 그동안 일상에서 얻은 단상을 기반으로, 기능과 쓸모를 상상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고양이가 작가의 작업실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작가의 정서적 변화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양이와 천천히 유대 관계를 형성해 온 경험을 자신의 시각 예술 언어로 변환합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담은 ‘풍경 조각’은 각각 독립적인 회화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조각이 되는 방법〉이라는 작품의 제목처럼, ‘풍경 조각’은 각각 독립적인 회화 작품이면서, 서로 맞추어 조립하면 여러 형태와 기능을 상상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됩니다. 혼자서도, 둘 또는 셋이서 함께하는 모양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강은영과 **송보경**은 같은 시간속에서 다른 체계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상상하고 협업을 통해 실천에 옮깁니다. ‘식물상점’의 운영자이기도 한 강은영은 식물의 시각적 가능성을 식물 자체와 관화 등의 매체를 통해 탐구해 온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위드플랜트(weedplant)’ 작업을 통해 구매와 판매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잡초’와의 공존을 실현합니다. 판매를 위해 구입한 화분에서 자라나는 풀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작가는 ‘잡초’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화분을 마련하고 전시장에서 살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송보경은 잡초의

While appreciating the exhibition [Alone-Together], we hope that you will visualize diverse ways to build relations with the people, animals, and plants in your environment and also with all the objects that surround them. As a writer once said, you will realize that solidarity is a life that is good whether alone or together.

“I do not know when it started, but I become easily emotional. If I see a person in a pitiful condition, it hurts me so much and I spend the whole day feeling gloomy. I think it is because I am very familiar with such circumstances.”— [From the writings of Chun Taeil]



위드플랜트

weedplant

식물상징물 모듬하는 강은영과 사진물 찍는 송보경이 함께 만든 작업이다.

강은영은 식물상징물 모듬을 위해 혹은 식물 작업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데려온다. 돈을 지불하고 사입한 식물도 화분 안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풀이 따라오기도 한다. 종도 크기도 다양한 이 풀들은 식물상징물에 자리를 잡고 판매되기 전까지 머물며 살아간다. 다른 화분에서 남아온 또 다른 식물의 씨앗들이 떨어져 새롭게 자라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원래 식물에게 물을 주는 주기에 맞춰 살아남으며 함께 자란다. 강은영은 화분들을 돌보며 곁에 자라는 이 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했다. 적절하게 번성하면 괜찮은데, 때로는 원래 식물을 덮어버릴 정도로 자라기도 했다. 그럴 때 곁에 자리한 식물들을 따로 심어주기도, 그냥 뽑아버리기도 했다.

위드플랜트는 따로운 식물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다. 강은영은 원래의 식물 화분 한 쪽에 자리를 잡고 자리한 식물들 각각이 좋아하는 환경에 맞춰 분갈이해주고, 영양분을 주고, 적절한 빛과 바람을 보내주려 한다. 병해가 생긴다면 적절한 약을 쳐주려고 한다. 이 화분들은 전태일 기념관 2층에 분갈이 이전의 모습을 송보경이 찍은 사진들과 함께 놓인다. 정방형 버전과 구선과 모습으로 프린트된 사진들은 이곳의 본래의 기능인 휴게를 잊고 화분되어 살아온 시간을 증명한다.

내년 초봄까지 두 사람은 원래의 식물에게서 독립한 풀들을 위한 시간간의 변화를 함께 다룰 것이다. 분갈이 한 화분 안에는 어떤 이름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해 된 풀여외의 풀씨들이 머물러 있다 어느 날 자라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로의 화분에 씨앗이 넣어 다른 화분에서 또 자라날지도 모른다. 또 한해살이 식물들은 씨앗을 남기고 죽을지도 모른다. 긴 시간 화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 마음이 든다.

강은영×송보경, 〈위드플랜트(weedplant)〉, 화분, 식물, 시트지, 아크릴, 실크 외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20.

분같이 이전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기념관의 휴식 공간을 꾸몄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따로-같이]를 관람하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사람들,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이 모두를 에워싼 사물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따로도, 함께도 좋은 삶이 연대일 수 있음을 떠올려 보면서 말이죠.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 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의 수기 중에서]

반재하 Ban Jaeha

Ban Jaeha explores the scenes of everyday events that she encounters socially and economically, showing absurdity in the concrete form of her work or recreating it through her own work. Through her solo exhibition *Dead Times, Living Labor* (Space Union, 2017) and group exhibitions, she has continued her work devoted to the 'labor' of human beings who are marginalized and hidden in the macroeconomic struc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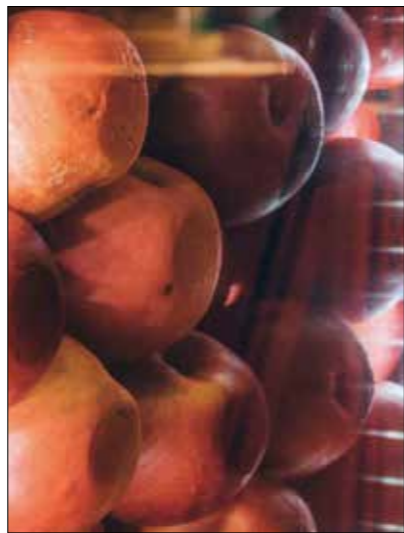
반재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접하는 일상적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 탐색하며 부조리함을 작품의 구체적 형식으로 보여 주거나,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재현한다. 개인전 《죽은 시간, 산 노동》(스페이스유니온, 2017)과 단체전을 통해 거시적 경제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가려지는 인간의 '노동'에 천착한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 ●



© (Suryuanbang) Lee Jheyoung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반재하, <무제 (눌린)> (Untitled (Squashed)),
100 × 100cm, Pigment Print, Framed, 2020.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반재하, <영토의 변형> (Transformation of Territory)), Dimensions Variable, Refrigerator,
Wood Palette, Plastic Box, Apple, Metal Lighting Equipment, Light, 2020.

반재하, 〈무제(수에즈 운하)〉(Untitled(The Suez Canal)), 270×10cm, Pigment Print, Framed, 2020.



© (Suryanbang) Lee Jheeyoung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반재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계를 멈출 수도 있다(The People Who Move the World Can Also Stop It)〉,
Single Channel Video, 08:53, Color, Sound, 2020.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반재하, 〈무제(수에즈 운하)〉(Untitled(The Suez Canal)), 270×10cm, Pigment Print, Framed,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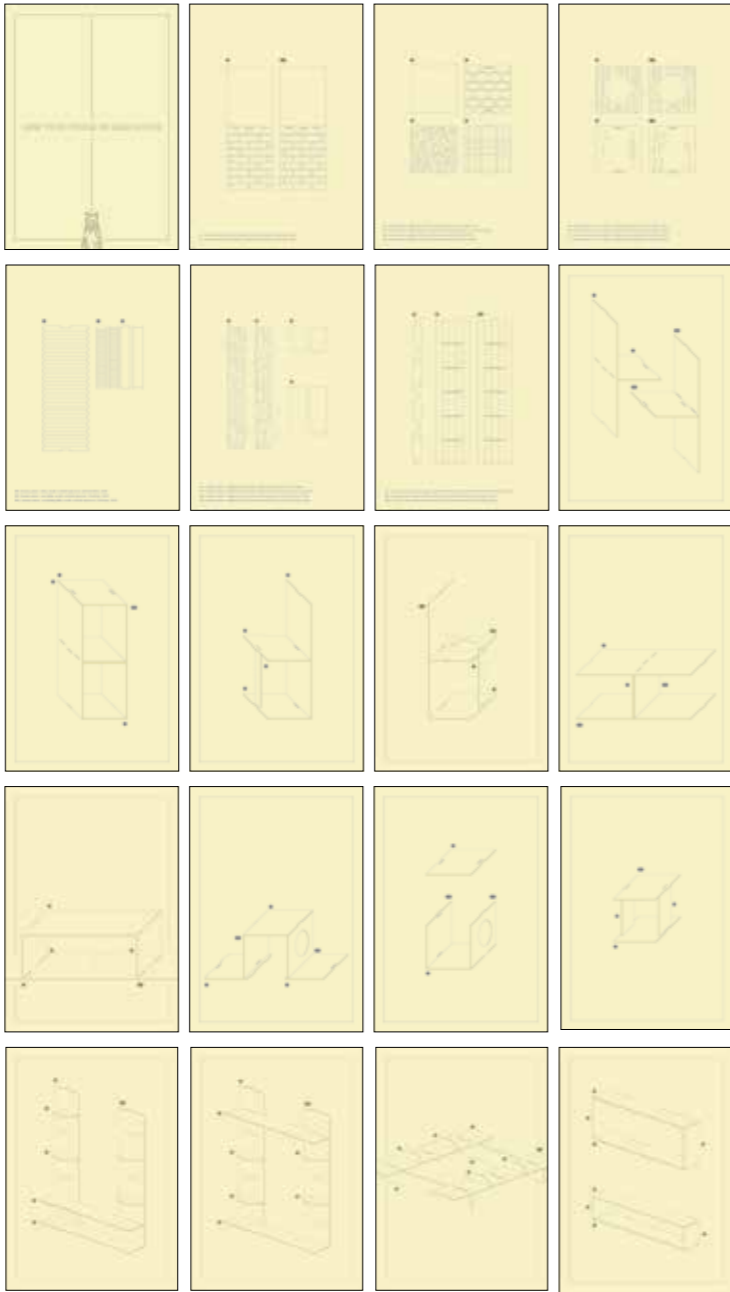
이미정 Lee Mijung

Lee Mijung has been creating sculptural objects in honest language about the real problems and worries she faces while living in Korea. It creates a stage-scene in a flexible state that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situations in space, and focuses on the role-performance that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 artist majored in ceramics, glass, and painting and has held solo exhibitions since 2013 at Gallery Kunstdoc, Art Space Hue, Art Delight, and the OCI Museum of Art. She participated in major group exhibitions such as Ilmin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Art, and Amado Art Space, and was selected for the residency program of Guandu Museum of Art in Taipei and Nanji Art Studio. ●

이미정은 한국에서 살아 가며 마주하는 현실적 문제와 고민에 관해 진솔한 언어로 조각적 오브제를 만들어 왔다. 공간 위에서 여러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연한 상태의 무대-장면을 만들어 내며, 상황에 따라 변주될 수 있는 역할-수행성에 주목한다. 도예 유리와 회화를 전공한 작가는 2013년 OCI 미술관을 시작으로 갤러리 쿤스트독, 아트스페이스 휴, 아트딜라이트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일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마도예술공간 등의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타이페이 관두미술관과 난지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



© (Suryuanbang) Lee Jheyeung



이미정, 〈우리가 서로의 조각이 되는 방법 (How to Be Pieces of Each Other)〉 사용법, 2020.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이미정, 〈우리가 서로의 조각이 되는 방법 (How to Be Pieces of Each Other)〉, 나무 위 아크릴릭, 가변 크기, 2020.



© (Suryuanbang) Lee Jeeyoung

강은영 Kang Eunyong

Kang Eunyong is creating images of plants and flowers with the concept of layers that create images in print. The artist, who majored in printmaking, worked on a project called *Photographing Life* (VanJiha, 2015) in search of similarities between printmaking and plants, and planned and participated in *Crossplane* (Unexpected Association, 2018).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such as *Prints, Printmaking, Graphic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20), *Hotel Society* (Cultural Station Seoul 284, 2020), and *Night Turns to Day* (Art Sonje Center, 2020). Currently, she operates a plant store 'singmul-sangjum' in Mangwon-dong, Seoul, Korea. ●

강은영은 판화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레이어의 개념으로 식물과 꽃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판화를 전공한 작가는 판화와 식물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 《감광생활》(반지하, 2015)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Cross-plane》(의외의 조합, 2018)를 기획하고 참여하였다. 《판화, 판화, 판화》(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0), 《호텔사회》(문화역서울 284, 2020), 《밤이 낮으로 변할 때》(아트선재센터, 2020)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망원동에서 식물을 판매하는 공간 '식물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



© (Suryuanbang) Lee Jheyoung



420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전태일기념관 2층 로비, 강은영×송보경, 〈위드플랜트(weedplant)〉, 화분, 식물, 시트지, 아크릴, 실크 외 혼합매체, 가변 크기, 2020.

421

2020 전태일 50주기 ● 특별 기획 현대 미술전 [따로-같이]
Special Exhibition [Alone-Together]
[F] 반재하, 이미정, 강은영×송보경



풍선덩굴
Cardiospermum halicacabum L.
상단 곳 흰색 등나무 화분

풍선덩굴은 무환자나무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이다. 남아프리카 원산으로 한국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여 한해살이 식물로 키우지만, 원산지에서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키운다. 7~9월에 하얗고 작은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 작은 초록색 풍선 모양의 열매가 달린다. 풍선이 갈색으로 익은 뒤 열매를 따서 안을 보면 검은색 비방의 하얀색 심장 모양이 새겨진 씨앗을 채종 할 수 있다. 이 풍선덩굴은 적년에 풍선덩굴을 키우던 화분 옆에 놓아둔 화분인 흰색 등나무 화분에서 올해 봄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였다.

바랭이
Digitalia ciliaris (Retz.) Koel.
상단 곳 자업안개나무 화분

비과의 한해살이풀이다. 냉온대에서부터 열대까지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한다. 7~8월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떨어져 휴면하여 낮은 온도와 습기 있는 땅에서 겨울을 보낸 뒤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을 틔운다. 바랭이는 모래나 자갈이 많이 섞인 토양에서 잘 자란다. 물칸나와 같은 농장에서 데려왔는데 농장에서부터 씨앗이 함께 왔을 것이라 추정된다.



풍선덩굴
Cardiospermum L.
상단 곳 8.2. 화분

풍선덩굴은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바랭이
Digitalia ciliaris (Retz.) Koel.
상단 곳 8.2. 화분

바랭이는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풍선덩굴
Cardiospermum L.
상단 곳 8.2. 화분

풍선덩굴은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바랭이
Digitalia ciliaris (Retz.) Koel.
상단 곳 8.2. 화분

바랭이는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풍선덩굴
Cardiospermum L.
상단 곳 8.2. 화분

풍선덩굴은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바랭이
Digitalia ciliaris (Retz.) Koel.
상단 곳 8.2. 화분

바랭이는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풍선덩굴
Cardiospermum L.
상단 곳 8.2. 화분

풍선덩굴은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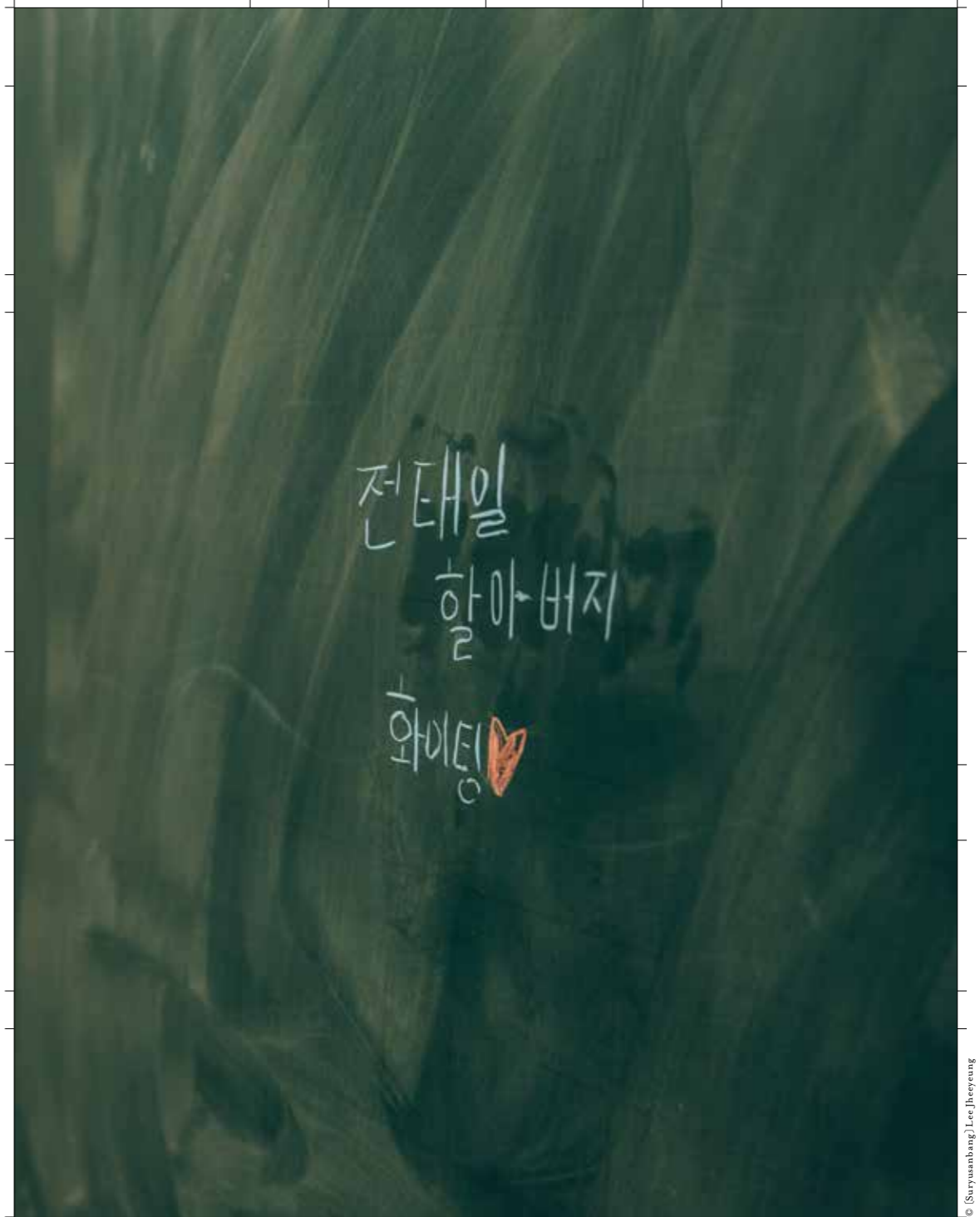
바랭이
Digitalia ciliaris (Retz.) Koel.
상단 곳 8.2. 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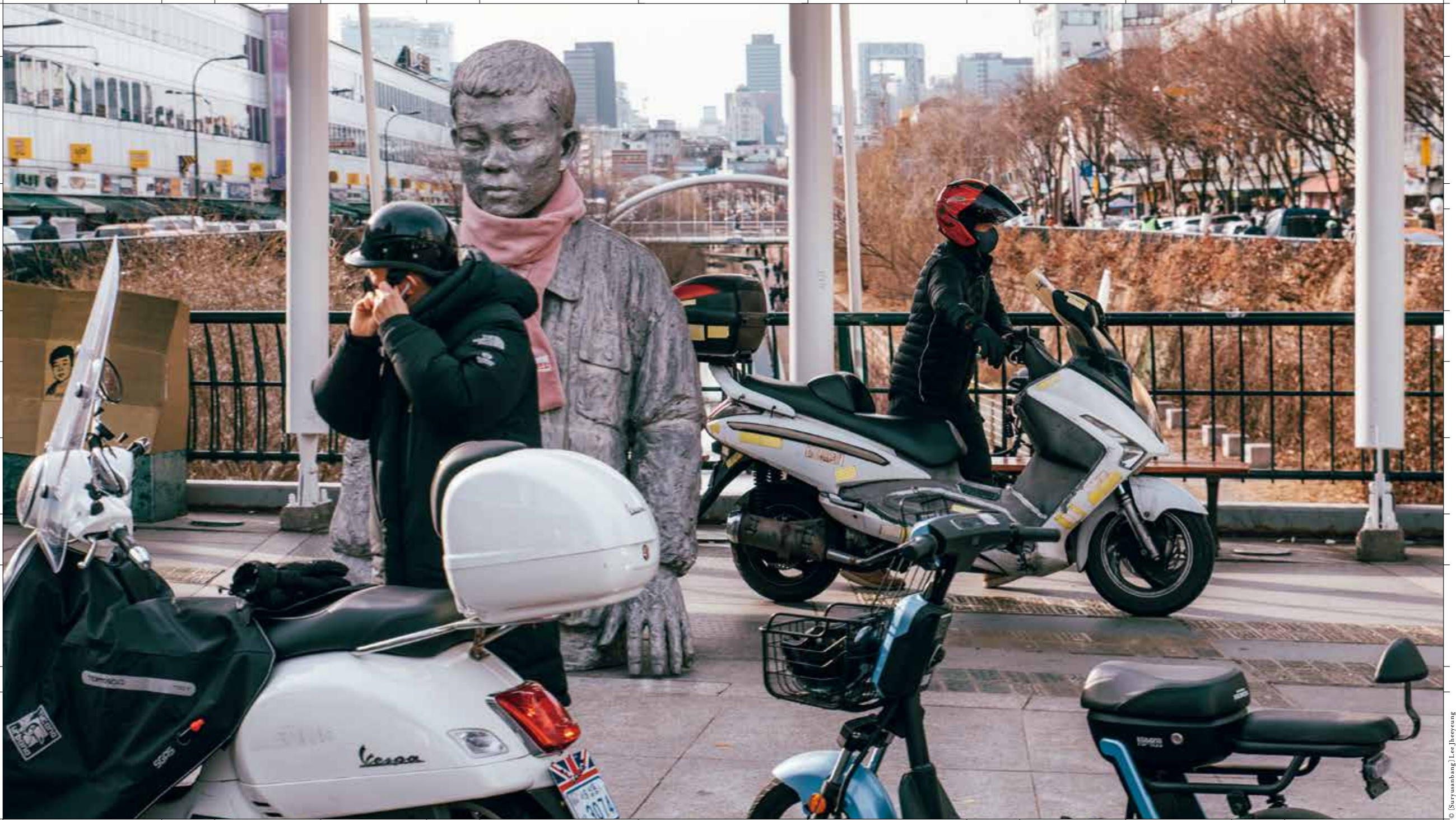
바랭이는 전 세계에서 열대에서 아열대까지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 식물들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풀이기도 하다. 풍선덩굴은 고온과 가뭄을 좋아한다. 겨울에 수분이 많아서 얼어붙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늦가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붙어 죽는다. 그러나 겨울에 물을 주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

강은영×송보경,〈위드플랜트(weedplant)〉, 화분, 식물, 시트지, 아크릴, 실크 외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20.



© (Suryuanbang) Lee Jheeyung





© (Suryuanbang) Lee Jeehyung

